예수님의 중언부언(?)

(마태복음 7:7~12)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언부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중언부언(?)'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예로써 위선자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방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만들어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자신의 생각을 중첩시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말과 생각을 통해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중언부언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삼스럽게 촉구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조차도 엄마에게 젖을 구하고 찾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그 자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니 중

언부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맛있는 반찬을 더 먹어보라고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먹는 중에 어떻게 더 먹느냐며 되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구하고 있는 중인데 더 어떻게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장소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언가로 채우려는 욕구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로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비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판이란 높음에 대한 욕구 때문에 발생합니다. 말단 사원이 하늘같은 사장님을 마음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높아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왜곡되어 나타날 때 비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움의 욕구와 높음의 욕구가 있는데 이 두 욕구는 본래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높음의 욕구도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존재하는 어떤 높음도 하늘처럼 높을 수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높음이란 전부 하늘 아래 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높음의 욕구도 자연적으로 채워져서 기쁨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비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채움에 관한 욕구와 높음에 관한 욕구로 분리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두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두 욕구에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면 구하는 것을 주시면 되고,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두드리고 있는 문을 열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을 아신다면 돈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개와 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개와 돼지는 진주로 상징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발로 밟는 자들이었습니다. 개와 돼지는 가짜 기쁨거리로 채워지고 가짜 높음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진짜 좋은 거룩한 하나님과 진주로 비견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발로 밟게 됩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을 향하여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거리와 높음의 자리를 성취했는데 굳이 세상을 등질 이유를 느끼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채움과 가짜 높음을 통해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개와 돼지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가지고자 하는 채움의 욕구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도달함으로써 성취되는 높음에 대한 욕구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만 충족 될 수 있습니다. 진주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채움의 욕구와 높음의 욕구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고 높아질 때에 기쁨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채움과 높음은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 채움과 높음을 이 땅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입니다. 개와 돼지로 비유하신 사람들은 가짜 채움 거리와 가짜 높음의 자리를 통해 마음의 충족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개와 돼지의 처지에 이르렀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 개와 돼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서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가짜 기쁨거리와 가짜 높음의 자리를 얻고자 세상을 향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짜 채움과 가짜 높음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채움 거리와 진짜 높음의 자리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또 9~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말씀은 얼핏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중언부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채움의 욕구와 높음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아버지도 자녀의 욕구를 진정으로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움과 높음이 필요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상의 아버지는 진짜를 줄 수 없는 가짜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임을 전제로 하시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채

움과 진짜 높음을 충족시켜주실 수 있기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아직 진짜 아버지와 진짜 자녀의 관계로 돌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일평생 구하고 찾고 두드려왔지만 그것은 허황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해서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천만 원을 빌리는데 400만 원은 선이자로 떼고 6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매달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해 쫓기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도망 다니던 중에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또 다시 돈을 구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구했던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삽질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일평생 삽질을 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 마음의 채움을 얻고 높음의 욕구 또한 충족시키게 되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제와 성과에 쫓기고 승진의 압박감에 쫓기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구하며 찾고 두드리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버리고 삶을 초기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까지 이르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을 실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채움과 높음의 욕구가 이 땅에서 충족되리라고 믿는 믿음이야 말로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코 마음을 채우고 높음의 욕구를 채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

히려 하나님으로 채움과 높음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뻐하는 자들이 삶을 시작하는 곳이 창조 때의 계획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의 높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떠한 높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뒤에 황금률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가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중에 만나는 사람은 사냥꾼의 먹잇감이 됩니다. 타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정이나 의리를 언급할 때에도 실제로는 상대를 통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채움과 높음의 욕구를 벗어나는 행동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높음을 가진 자라면 자녀에게 나의 생각과 판단을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채움과 높음의 욕구가 충족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타인에 대한 태도는 달라집니다. 아직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채움과 높음을 향한 욕구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음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황금률이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황금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으로 마음의 채움과 높음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오히려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의 기본은 마음의 채움과 높음의 욕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황금률은 도덕적으로 대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채움이 되시고 하늘이 나의 유일한 높음이 된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황금률의 삶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냥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서조차 채움과 높음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마음이 편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자면 개와 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고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개와 돼지입니다.
가짜 채움 거리 가짜 높음 거리로 스스로를 속이는 개와 돼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주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밟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중언부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가짜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를 향한 역사상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가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삶을 물로 씻어 버리듯이 말끔히 씻어버리고 진짜를 향한 욕구 충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 채워지고 하늘만큼 높은 상태가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